한국경호경비학회 – 제36호(2013): 57–92
투고일 2013. 07. 28, 심사일 2013. 08. 16, 게재확정일 2013. 08. 24

전공만족과 무도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경호전공과 무도전공 중심으로 –

김영현 · 김우진 · 민왕식 · 양영모 · 곽한병

전공만족과 무도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경호전공과 무도전공 중심으로 -

김영현* · 김우진** · 민왕식*** · 양영모**** · 곽한병*****

〈요 약〉

본 연구는 경호 및 무도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이 취해지는 매커니즘(mechanism)을 확인하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 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경호전공과 무도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 하였다. 이에 따른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이며, 총 434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과 무도수련만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각각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무도수련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공 집단별 잠재평균분석 결과, 전공만족, 무도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 전공만족, 무도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용인대학교 강사
** 경기대학교 강사
*** 경기대학교 박사수료
**** 경기대학교 박사수료
***** 경기대학교 교수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 의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 사회변화는 물질적 풍요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각종 사회적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서상열·정일석, 2009), 범죄문제들이 광역화·지능화·신속화·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유형창·김태민, 2008). 따라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반인에게 경호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비의 수요 역시 주요 국가시설물 및 산업시설에서 소규모 민간 기업 및 상점들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경호·경비 수요의 다변화는 기존 경찰이 제공하던 공공 치안서비스보다 더욱 전문적이며 세분화된 안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보여주며(유형창, 2010; 113), 과거 보다 전문적이며 세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이에 부응하여 국내의 민간경호·경비산업은 그동안 많은 양적 성장을 도모해 왔다.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기점으로 경호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보안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강민완·장예진·이영선, 2005; 3).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비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3,651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비원의 수도 약 15만 명에 이른다(경찰청, 2011). 또한 민간 경호

·경비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도 보안회사, 공항 등 특수경비분야로부터 산업보안요원, 민간군사요원, 안전관리교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향후 민간조사요원, 사이버 보안 요원 등으로 더욱 분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반면, 국내 민간경호·경비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김동제·조성구, 2012; 박준석, 2007; 박준석·박대우, 2004). 즉, 경호 및 경비요원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직무에 대한 이해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현장으로 투입되어 국내 민간 경호·경비원의 낮은 전문성은 국내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호·경비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법률 정비 등과 더불어 일선 경호원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박준석·박대우, 2004; 190-191).

물론 경호·경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확보는 단지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자격제도를 개선한다고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 나은 보수와 근무여건 등은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리후생이 근본적으로 구직자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경호·경비요원들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경호·경비직에 대한 확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혹은 구직자를 발굴하는 데에서 국내 민간경호·경비 산업의 질적 향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 정체성과 조직성과 혹은 직무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직업 정체성과 조직·직무성과 사이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김민정, 2013; 김성아, 2009; 전태준, 2006),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이자형과 연보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공학계열의 취업자 모두 구직 이전에 했던 취업준비활동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얻은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직업·진로에 대한 정체성 및 취업 이전의 취업준비행동이 취업 이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업인으로서 경호요원들이 입직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체성, 사명감 및 진로준비행동 등은 경호·경비직으로의 입직 후 성과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호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직업 정체성을 심어주고 적절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면 우리나라 경호·경비산업의 질적

제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면서 최근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하정·홍지영, 2013; 박혜선·김봉환, 2013; 남태우, 2013; 김정화·김미경·김진경·고은영, 2012; 김명옥·박영숙, 2012; 전상완·이우승, 2012; 류재윤·이윤경, 2012; 황미경·문영주, 2012).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의 장면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등의 인지·태도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및 실천행위를 향상시키고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남진, 2003; 2).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라 이론적 틀을 제시해주기 위한 경험적 연구결과의 축척이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 그에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공만족을 살펴보면, 전공만족이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상태, 태도, 가치, 신념 및 욕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한예정, 2008). 또한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강한 예측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승민, 2011; 황지영, 2011; 양진희, 2007; 김우경·김응준,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Hackett & Betz, 1981; 한나리, 2010)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주요 선행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중, 2005; 유미정, 2008).

마지막으로 무도수련 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화, 2009). 하지만 이들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이들 관계의 재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각 변수 즉,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단순인과관계 및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들 변인의 구조적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그리고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이론적 근거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와 전공에 따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및 진로인식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설정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전공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서도 대학 진학 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은 진로의식의 형성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임용수, 1993).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에 관한 연구(임승민, 2011)에서 전공만족의 하위변인인 인식만족과 관계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목표설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혜주, 2007)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선행변수임을 확인해주었다. 황지영(2011)의 연구 즉, 전공만족과 전공수업 몰입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도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Ⅰ.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무도수련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대학생의 무도수련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유사한 연구인 무도학과 대학생의 전공수업만족과 가치관 명료성 및 진로결정 효능감의 관계연구(남재화, 2009)에서 무도수업의 만족은 진로결정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무도수련이 진로관련 인식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호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직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인 무도수련에 대한 만족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관계설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Ⅱ. 무도수련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전공만족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

김상진과 김종걸(2007)은 경호전공 과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결정 수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연구(강승희, 2010)에서도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Ⅲ. 전공만족은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중의 하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이는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등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강정은,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Taylor와 Betz(1983)의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들은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현주(2009)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Ⅳ.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김이지·정신영·김지애·김지윤·이동귀, 2011), 자기애 성향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김태석·이기학, 2012),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김효진·장윤옥, 2011),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이상희, 2007),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박고운·이기학, 2007)연구 등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6) 전공에 따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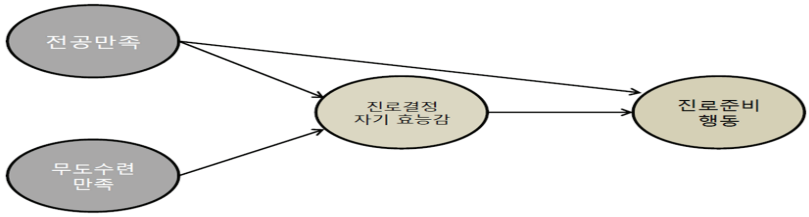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고은미, 2005; 이여진·신준호, 2012; 김창호, 2008; 김보겸, 2012; 엄영순, 2008; 박숙경, 2013; 유미정·최애경, 2008; 강정은, 2008; 박재은·이정애·이지연·정익중, 2011)는 다수인 반면 전공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 및 전공에 따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변인의 차이검증 즉,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위한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Ⅵ.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은 정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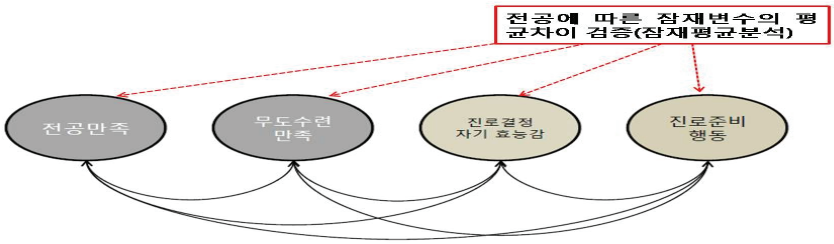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들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 그리고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른 잠재평균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생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위한 각 변인의 공분산 설정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그림 2〉 공분산 설정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더불어 이 분석 모형을 통해서 경호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경호 및 무도 전공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지역의 5개 대학 중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500부 중 449부가 회수되었으며, 수집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434부가 실제분석에 활용되었다.

4. 조사도구

경호 관련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별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전공만족

전공만족도는 하혜숙(2000)의 연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교과만족,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만족, 학문의 일반적 만족,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족의 4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매우 그렇지 않다=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무도수련만족

무도수련만족도 척도는 윤오남(2002; 8, 37)의 태권도 수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 방어에 대한 만족, 기술적 만족, 정신적 만족의 3개 하위 개념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 매우 그렇지 않다=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CDMESES)의 단축형인 CDMESES-SF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문제해결, 정보수집, 계획설정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매우 그렇지 않다=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는 진로준비노력, 진로탐색, 진로상담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매우 그렇지 않다=1)로 측정하였다.

5.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모형 분석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판정은 홍세희(2000)연구에 근거하여 *X2, df, p,* TLI, CFI, RMSEA값 등을 제시하였다. *X2*통계량의 경우 표본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TLI[1], CFI[2], RMSEA[3]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

1), 2) .90이상이면 적합도는 좋다고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3)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05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Brown & Cudeck, 1993).

넷째, 모형수정(model modific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며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위해 소벨검증(Sobel Test)을 실시하였다(Sobel, 1982).

다섯째,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전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Hong·Malik & Lee, 2003).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수련종목 등 총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이분화 하였으며, 학년 및 수련종목 등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전체		경호전공		무도전공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성별	남자	343	79.2	151	82.1	192	77.1
	여자	90	20.8	33	17.9	57	22.9
학년	1학년	102	23.7	26	14.2	76	30.6
	2학년	164	38.1	74	40.4	90	36.3
	3학년	114	26.5	41	22.4	73	29.4
	4학년	51	11.8	42	23.0	9	3.6
수련종목	유도	201	46.3	48	26.1	153	61.2
	태권도	118	27.2	70	38.0	48	19.2
	용무도	115	26.5	66	35.9	49	19.6

2.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접근법(two step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하며, 두 번째는 구조모형을 추정한다.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경로모형의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투영된 개념이 적정하게 측정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적합도 및 모형의 타당성(AVE, 개념신뢰도)을 검증하였다.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본 연구의 잠재변수는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정체감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이며, 전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X2=172.445(p=.000)*, TLI=.944, CFI=.957, RMSEA=.067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적합도지수	적합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TLI	.9 이상	.944	적합
CFI	.9 이상	.957	적합
RMSEA	.10 이하	.067	적합
X2=172.445, df=59, p=.000			

2)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구조방정식 모형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평균분산추출(AVE) 그리고 개념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요인부하량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이 최소 .5 이상이어야 하며, .95 이하면 좋다고 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인 유의성

에 대한 검증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요인부하량의 유의성은 높지만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5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의 값은 .604～.856으로 나타났다.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와 측정변인의 오차를 통해 산출되는 추정방법이다. 개념 신뢰도는 Cronbach's α 보다 더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론적으로 .7 이상일 경우 적합하다. 개념 신뢰도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허 준, 2013).

$$\text{개념신뢰도} = \frac{(\sum \text{요인부하량})^2}{[(\sum \text{요인부하량})^2 + (\text{오차분산의 합})]}$$

본 연구에서 각 구성개념의 개념 신뢰도는 .960～.98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합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AVE의 값은 .50 이상일 경우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12).

$$AVE = \frac{(\sum \text{요인부하량}^2)}{[(\sum \text{요인부하량}^2) + (\text{오차분산의 합})]}$$

본 연구에서 각 구성개념들의 AVE 값은 .889～.932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성개념	관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AVE	개념 신뢰도
전공 만족	교과만족	1.000	.784	-	.925	.980
	관계만족	1.047***	.721	.069		
	일반만족	1.153***	.789	.068		
	인식만족	1.053***	.815	.060		

구성개념	관측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AVE	개념 신뢰도
무도수련 만족	자기방어	1.000	.650	-	.889	.960
	기술만족	.984***	.650	.089		
	정신만족	1.271***	.821	.100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	1.000	.759	-	.932	.976
	정보수집	1.117***	.761	.071		
	계획설정	1.171***	.856	.066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노력	1.000	.811	-	.922	.972
	진로탐색	.895***	.731	.069		
	진로상담	.706***	.604	.063		

*** P<.000

2) 변인간의 상관분석결과

구성요인들의 상호관련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구성변인 끼리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교과만족(1)	1												
관계만족(2)	.575**	1											
일반만족(3)	.636**	.559**	1										
인식만족(4)	.627**	.584**	.641**	1									
자기방어(5)	.321**	.407**	.324**	.431**	1								
기술만족(6)	.336**	.326**	.328**	.463**	.439**	1							
정신만족(7)	.467**	.404**	.460**	.493**	.516**	.545**	1						
문제해결(8)	.481**	.379**	.482**	.437**	.374**	.291**	.458**	1					
정보수집(9)	.501**	.498**	.455**	.508**	.406**	.374**	.532**	.601**	1				
계획설정(10)	.511**	.489**	.555**	.568**	.470**	.402**	.510**	.670**	.619**	1			
진로준비(11)	.241**	.212**	.256**	.226**	.248**	.209**	.378**	.394**	.357**	.488**	1		
진로탐색(12)	.226**	.122*	.158**	.139**	.160**	.174**	.293**	.288**	.322**	.338**	.615**	1	
진로상담(13)	.331**	.307**	.279**	.360**	.319**	.233**	.336**	.308**	.427**	.448**	.445**	.454**	1

* P<.05, ** P<.01

3. 구조모형 및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

1)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

본 논문의 연구 모형은 전공만족과 무도수련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X2=174.694(p=.000)*, TLI=.944, CFI=.957, RMSEA=.066 으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측정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적합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TLI	.9 이상	.944	적합
CFI	.9 이상	.957	적합
RMSEA	.10 이하	.066	적합
X2=174.694, df=60, p=.000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임계치

비 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전공만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86***	.500	.055
무도수련만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02***	.411	.05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 행동	1.292***	.936	.166
전공만족	→	진로준비 행동	-.373**	-.350	.117

*** $p<.000$, ** $p<.01$

한편, 본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총 4개의 경로계수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계수=.50, *p=.000*). 무도수련만족 역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계수=.41, *p=.000*).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계수=.94, *p=.000).* 전공만족의 경우는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준화 계수=-.35, *p=.001*).

(2) **매개효과 분석**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는 소벨 검정(Sobel test)[4]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소벨 검정(Sobel test)을 통하여 확인한 매개효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

경 로					Z	S·E
전공만족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 행동	5.212***	.42

*** $p<.000$

검정결과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5.212(*p=.000*)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Z분포의 임계치인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2) 전공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 분석

각 변인 즉,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이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4) Sobel(1982)에 의한 Z 검증은 2개의 경로계수를 갖는 매개효과의 검증에 유용한 방법으로서, a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준화 계수를 의미하며, b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비표준화 계수를 의미한다.

잠재평균분석을 위해서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이 성립되어야 한다(Hong·Malik & Lee, 2003). 따라서 잠재평균분석 전에 이들 동일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의 순서로 검증하였으며, 효과크기를 구하기 위하여 코헨의 d를 계산하였다(Cohen, 1988). 이를 구하기전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분산 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김주환·김은주·홍세희, 2009).

(1) **집단간 동일성 검증결과**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변인에 대한 측정 모형을 경호전공집단과 무도전공집단에서 비교하였다. 모든 잠재변수 간의 공분산을 설정하고, 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토록 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X2=237.530, df=118*, TLI=.935, RMSEA=.048).

다음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서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 적재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X2*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모형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에 내재된 모델(nested model)이므로 *X2*검증이 가능하다(김주환·김은주·홍세희, 2009). 검증결과 측정 동일성 모형(metric invariance)과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모형의 *X2*값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X2=11.067, df=9*, p=.271). 또한 TLI값 및 RMSEA값 역시 좋아졌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TLI=.003, RMSEA=-.001).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모형과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모형간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검증결과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모형과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간의 X^2값의 차이는 유의미하므로(*X2=146.859, df=13*, p=.000), X^2값의 차이에 의한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적합도 차이는 미미하므로(TLI=-.055, RMSEA=.018) 부분 절편동일성을 만족하였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이는

경호전공 집단과 무도전공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찰된 평균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헨의 효과크기 산출을 위한 요인 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모형과 요인 분산 동일성 모형간의 X^2값의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X2=2.786, df=4*, p=.594). 또한 TLI값 및 RMSEA값 역시 좋아졌기 때문에 요인 분산 동일성은 성립되었다(TLI=.003, RMSEA=-.001). 따라서 효과크기 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 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X^2	df	TLI	RMSEA
모형1 : 형태동일성	237.530	118	.935	.048
모형2 : 측정 동일성	248.697	127	.938	.047
모형3 : 측정 및 절편동일성	395.556	140	.883	.065
모형4 :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	398.342	144	.886	.064

〈표 9〉 모형간 차이검증

모형	X^2	df	p	TLI	RMSEA
모형2 - 모형1	11.067	9	.271	.003	-.001
모형3 - 모형2	146.859	13	.000	-.055	.018
모형4 - 모형3	2.786	4	.594	.003	-.001

(2) **잠재평균 분석**

잠재평균 분석은 비교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하여 측정 집단의 잠재평균을 측정한다. 본 연구는 무도전공자의 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서 전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경호전공자가 무도전공자에 비해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이 채택되었으므로 다음으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d값이 .2 이하면 작은 것으로, .5면 중간수준,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효과크기 분석결과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은 .8 이상으로 나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준비행동은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전공별 잠재평균차이 검정

잠재변인	무도전공	경호전공	S.E.	효과크기
	잠재평균	잠재평균		
전공만족	0	.500***	.061	1.886
무도수련만족	0	.347***	.060	1.47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	.399***	.059	1.419
진로준비행동	0	.272***	.076	0.555

*** $p<.001$

Ⅴ. 논 의

1. 전공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전공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이 소속된 전공학과가 본인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하혜숙, 2000).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며(장선철, 2003), 진로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

전공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두 요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강승희(2010)는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는 직업을 결정하고,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승민(2011)은 전공만족의 하위변인인 인식만족과 관계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인 목표설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r^2값이 40.4%나 되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강력한 예측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래(2009)의 연구에서는 한식조리전공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의 구성요소 중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결정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교수법등을 조작하고 개인의 적성, 재능 및 지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무도수련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무도수련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도수련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도수련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문제해결, 정보수집, 계획설정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도수련만족이란 무도수련 경험의 결과로 발생하는 만족의 정도라 할 수 있다(김원회, 2011). 일반대학생의 경우 무도수련만족이 진로관련 변인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호전공자와 무도전공자는 과목의 특성상 무도수련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사료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관계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경호원의 무도수련과 자아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관계연구(이경근, 2007)에서 무도수련은 자아효능감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인과관계분석에서도 무도수련은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무도학과 대학생의 전공수업만족과 가치명료성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연구(남재화, 2009)에서 전공수업만족의 하위변인인 교육적 만족감이 진로결정 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직업정보수집과 목표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었다.

Schunk(1994)에 의하면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자기효능감의 점진적 획득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호 및 무도 전공자의 규칙적인 무도수련 참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들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부족으로 무도수련 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예측인자 및 선행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3.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는 진로준비노력, 진로탐색, 진로상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의 어떤 요인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 진로목표를 위해 기본적인 능력을 쌓는 행동, 그리고 진로목표에 입문하는 행동(서진숙, 1998)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이다. 관련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이연수·정한결, 2012)에서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의 하위변인인 교수·학습활동은 진로준비의 하위변인인 진로탐색, 진로준비노력, 전문인 진로상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흥미 및 동기는 직업탐색, 외국어 준비영역, 정보수집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체육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혁진, 2010)에서는 학과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전공만족을 높게 느낄수록 취업과 관련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및 진로상담 활동 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진로준비행동은 "경호 관련 직종에 대한 구직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진로탐색과 상담 등의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전공만족이 증가할 경우, 경호 관련 직종에 대한 구직행동 혹은 준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진로탐색과 상담행동은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종길(2007)의 연구에서는 경호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은 타 전공 대학생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사람이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각자가 선택한 진로에 따라서 능력발휘의 기회, 거주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Tolbert, 1980). 따라서 향후 분석에서는 이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거나 통제한다면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 대한 일반화에 좀 더 근접할 것이라 사료된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는 진로준비노력, 진로탐색, 진로상담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다(김선중, 2005). 따라서 '특정행동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행위 혹은 진로관련 행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 이론에서는 이러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보고한다(이응철, 2007). 이와 같은 내용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김선중, 2005)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많을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29%의 설명력을 가지며,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Blustein · Devenis와 Kedney(1989)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전공만족,

무도수련만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계수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호 및 무도 전공자의 진로교육, 진로지도 및 진로 상담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전공에 따른 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론은 최근 직업행동이론에서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진로심리학자들에 의해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이 진로결정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백사인·김경미, 2011).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의 주요근원으로 과거의 성공경험, 다른 사람의 성취, 언어적 설득, 개인의 생리적, 정서적 상태를 꼽고 있다. 즉, 과거에 느꼈던 긍정적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선행연구에서 직접 다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연구(김이지·정신영·김지애·김지윤·이동귀, 2011)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재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매개효과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탐색과 계획이 확고해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다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추가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즉, 잠재평균분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호전공자가 무도전공자에 비해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최근 공공부문의 공경호, 경찰이외의 경비, 경호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부문의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호전공학생들의 진로는 군, 경찰, 사설경호, 보안회사, 경호·경비회사, 공항 등 특수분야 및 일반대기업의 비서실, 개인경호요원, 소방공무원 등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게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창호·정정석·이영오, 2006) 반면, 무도전공자의 진로분야는 무술도장 지도자, 감독 및 코치, 체육교사 등으로 그 진출 분야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무도전공자와 경호전공자의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인식의 차이는 졸업 후 진로선택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경호전공자는 경호와 경비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기뿐만 아니라 각종 레포츠, 외국어, 컴퓨터 교육을 통해 행정기획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임이은, 2004). 따라서 경호전공자의 교육구성 인식은 긍정적인 반면, 무도학과 교육내용 구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언, 2006). 따라서 무도전공자와 경호전공자의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인식의 차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차이에서 기인하였다고 본다.

Ⅵ. 결론 및 제언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와 관련한 제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에 걸쳐 관심을 받아 왔다.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도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와 전공에 따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및 진로인식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며, 셋째,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따른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경기 지역 대학의 경호전공과 무도전공대학생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였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3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설계하여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관계로 구성한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ILI=.944, CFI=.957, RMSEA=.066). 둘째, 전공만족과 무도수련 만족은 내생(종속)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로계수를 비교하였을 때 전공만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공 및 무도수련 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예측요인으로서 무도수련만족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이 높아지면 진로준비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며, 기존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공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이었지만 간접효과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집단간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이 만족하였으므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무도전공의 평균을 0으로 제약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등에서 경호전공자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무도전공자에 비해 경호전공자가 각 변인 즉,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술적 측면,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측면, 경호 산업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기존 경호전공과 무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관련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 등의 변수와 더불어 무도수련만족 등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제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제 변수들을 구성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는 확보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타 전공의 영역에서 차용한 것으로 .9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추후 경호전공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경호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구들을(김종걸, 2007; 김창호, 2008; 김창호·정정석·이영오, 2006) 충분히 고찰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들 역시 대부분 타 전공의 영역이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에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경호전공과 무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경호전공과 무도전공에 특화된 진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무도전공 대학생 집단의 경우 전공만족, 무도수련만족 및 진로인식을 높여줄 지도도구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도전공자의 낮은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한편, 앞서 선행연구에서 다룬 바와 마찬가지로 타 전공 대학생들의 경우와 다르게 경호 및 무도 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예컨대

경호 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수업과 활동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직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적인 진로준비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일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진로탐색과 상담에 쏟는 역량을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학교 및 전공 활동에 대한 만족으로 인하여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호 및 무도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학술적, 실무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경호 요원에 대한 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호 관련 전공 역시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경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지 못했다. 수도권 지역이 가장 큰 경호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경호전공을 개설한 대표적인 대학에서 표본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나 모집단에 대한 완벽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표본 수 확대 및 표본추출방법의 다양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타 학문 및 외국에서 개발된 진로 관련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경호전공과 무도전공 대학생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진로 관련 척도의 개발은 여러 번의 조사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일부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에 추후 경호 전공 대학생에 대한 진로 척도가 개발되어 더욱 정확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부(-)적으로 나왔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연수·장한결, 2012; 권혁진, 2010)와 상반된 결과이므로 이들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동시에 진로결정 자율성, 무도만족 등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실증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추후 이러한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민완·장예진·이영선(2005). 경호, 경비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0: 1-34.

강승희(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 수상해양교육연구, 22(2): 151-164.

강정은(2008). 진로장벽,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4년제 여자대학생과 전문대 여자대학생 비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찰청(2011). 2011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고은미(2005). 체육계열 전공자들의 직업기대가 전공 및 학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권혁진 (2010). 체육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남진(2003).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김동제·조성구(2012). 민간경호시장의 문제점에 따른 인력풀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치안행정논집, 9(2): 97-119.

김명옥·박영숙(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김민정(2013). 수술실 간호조직문화, 전문직 정체성 및 조직성과.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보겸(2012). 무도도장 선택속성과 지도자 리더십이 수련만족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상진·김종걸(2007).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53-64.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김성아(2009).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김우경·김응준(2012). 체육계열 전공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2): 65-77.

김원회 (2011).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운동몰입이 참여만족도 및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이지·정신영·김지애·김지윤·이동귀(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3(4): 971-993.

김정화·김미경·김진경·고은영(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9(1): 417-442.

김종걸 (2007).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주).

김주환·김은주·홍세희 (2009).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 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김창호(2008). 경호전공 만족도와 진로의식 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91-107.

김창호·정정석·이영오 (2006).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1, 21-36.

김태석·이기학(201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김혜주(2007).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 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효진·장윤옥(2011).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2.

남재화(2009). 무도학과 대학생의 전공수업만족과 가치관명료성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8(2): 395-408.

남태우(2013).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류재윤·이윤경(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 학회지, 9(4): 99-116.

박고운·이기학(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409-422.

박숙경(2013).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

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재은·이정애·이지연·정익중(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박준석(2007). 민간경호·경비·보안관련 전문자격제도의 도입방안 모색,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63-115.
박준석·박대우(2004). 한국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7: 190-211.
박혜선·김봉환(2013).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343-357.
백사인·김경미 (2011).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 91-109.
서상열·정일석(2009). 한국 시큐리티 산업의 인사관리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4: 131-159.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양진희(2007).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엄영순(2008).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우종필(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출판사.
유미정(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미정·최애경(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한국상업교육학회, 19: 129-153.
유형창(2010). 한국경호안전산업의 성장과 경호전공의 미래. 한국경찰학회보, 12(4): 111-144.
유형창·김태민(2008). 위해사례분석을 통한 경호제도의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1-19.
윤오남(2002). 태권도 수련자의 참여만족 및 인격형성에 따른 대중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이경근 (2007). 민간경호원의 무도수련과 자아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이경래 (2009). 조리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식조리전공 만족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기학·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

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127-136.
이상희(2007). 진로장애와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19(2): 375-392.
이여진·신준호(2012). 일개지역 전문대학 보건행정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과 향후 진로 선택의 상관성. 한국산업기술학회, 13(2): 725-733.
이연수·정한결(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6: 17-34.
이응철(2007). 건강행동이론의 입문. 야스미디어.
이자형·연보라(2012).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4): 199-226.
이현주(1999). 대학생의 사회불안, 진로결정장애,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진로교육연구 21(2): 109-125.
이형언(2006). 무도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임승민(2011).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임용수(1993).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171-184.
임이은 (2004). 경호안전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의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장선철(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화와 개인인지 변인간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전상완·이우승(2012). 지방대학 체육전공 학생들의 스포츠 가치관과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2): 87-102.
전태준(2006). 사회체육지도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와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하정·홍지영(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1): 353-374.
하혜숙(2000).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나리(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인에 관한 연구:비서관련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예정(2008). 조리전공 고등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허 준(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 아카데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황미경·문영주(2012).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직업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19(4), 1-25.

황지영(2011).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전공수업 몰입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 국외문헌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Schunk, D. H. (1994).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a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e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Taylor, K. M., & Betz, N.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cational Behavior, 22(1): 63-81.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u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lustein, D., Devenis, L. E., & Ke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

【Abstract】

Causal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f major and martial arts education on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ecurity Service Major and Martial Arts Major -

Gwak, Han-Byuong
Min, Wang-Sik
Kim, Young-Hyun
Yang, Young-Mo
Kim, Woo-Jin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re determined by ident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 and to offer proposals for promoting their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ith this aim, the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atisfaction with a major, and satisfaction with martial arts training on career identity, as well as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concerning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this, the study set as a populati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 in the Gyeonggi region. As a subsequent sampling method, the study selected 300 students through purposive sampling. Then, excluding 13 copies of which the answers were insincere, 263 cop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detailed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regarding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it was discover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cond, whereas satisfaction with a

major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 had a negative (–)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ird, satisfaction with martial arts training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ur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positive (+)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ifth, career identity had a negative (–)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martial art training satisfaction, path preparation behaviors